

	<b>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보도자료</b>
<b>2022.8.12.(금)</b>	담당 : 빅테크 갑질 대책TF 유정주 의원실(02-784-9401)

## 정산정보제공 시스템 통해 창작자의 정산내역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

- 빅테크 갑질 대책TF, 카카오엔터 방문해 상생간담회 개최
- 작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반영 결과
-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플랫폼과 창작자가 함께 노력해야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빅테크 갑질 대책TF'는 8월 12일(금) 오전 10시 30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합정오피스를 방문해 '웹툰 정산정보제공 시연 및 플랫폼·창작자 상생간담회'를 개최했다.

상생간담회는 사회를 맡은 유정주 의원의 참석자 소개 이후 문체부의 웹툰 상생협의체 진행상황 보고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파트너 포털(정산정보제공 시스템)' 시연, 정산정보제공 시스템에 대한 창작자 의견 청취, 웹툰 현안에 대한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웹툰업계의 불공정 계약과 더불어 창작자를 위한 정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는 창작자와 함께하는 지속성장 방안 중의 하나로 작가용 정산 사이트인 '파트너 포털'을 구축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웹툰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세계시장에서도 주목하는 K-콘텐츠의 핵심이 되었다"며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기 마련인데, 급격한 성장 이면에 불공정 계약과 같은 창작자들의 희생과 고통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오늘 보게 될 파트너 포털 정산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이 논의의 결과물로 잘 만들어져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창작자의 권익을 보장하면서 용기를 북돋는 것이 시장을 키우는 것이라 보고, 이런 변화가 웹툰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풀어가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TF팀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은 "창작자들의 노고가 값어치로 매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는 플랫폼의 이해가 필요하다"며 "시장에서 사고파는 사람 중 팔려고 하는 부분, 즉 창작자들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줘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K콘텐츠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트너 포털'이라는 이름의 정산정보제공 시스템을 선보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이진수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이 웹툰, 웹소설 산업이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와 웹툰 상생협의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또 산업의 주춧돌이 되는 창작자들과 함께 더욱 소통하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하며, "성숙하고 건전한 창작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F의 위원인 김병욱 의원은 "산업의 화려함 속에 노동집약산업에 종사하는 창작자들의 환경이 참 열악하다"며 "건전한 생태계 육성을 위해 보다 더 진전된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웹툰 창작자와 업계간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상호 갈등 해결 및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출범한 '웹툰상생협의체'는 총 12명 위원으로 구성·운영 중이다. 현재 △매출정보 공개, △수익배분 방식, △불법 웹툰 근절대책 마련 등 5차 회의를 마친 상태이며, 10월 중 상생협약문 체결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시연한 '파트너 포털'은 지금까지 정산내용과 소통창구가 CP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작가그룹도 정산내용과 소통창구를 모두 공유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계약대상인 CP뿐 아니라 작가들에게도 작품별 정산 및 열람 권한을 부여해 CP사와 거의 동일한 메뉴와 내용을 제공한다.

'파트너 포털' 시연 후 창작자들은 "다양한 마케팅으로 정확한 매출구조를 알기 어려웠는데,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중소플랫폼으로도 전파가 잘 되길 바란다", "웹툰 산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팀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글작가 등 일부가 아니라 다른 파트의 작가들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한다", "창작의 다양성의 장이 이런 매출정보와 추이 등을 볼 수 있는 정산시스템을 기초로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가와 플랫폼이 좀 더 깊은 파트너 관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네이버웹툰의 경우, 창작자들을 위해 어떻게 정산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김현우 네이버웹툰 한국웹툰리더는 “네이버웹툰 역시 프렌즈라는 이름의 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소속 작가들이 정산정보를 요구했을 경우,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늘 상생간담회의 준비를 맡은 유정주 의원은 “작년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개선한 시스템을 이렇게 보게되니 뿌듯하다”며 “창작자들의 노력의 가치와 위상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내 작품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누구보다 창작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자유발언 시간에는 △불법웹툰 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표준계약서 개정시 세심한 접근 필요 및 현장에서 사용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박홍근 원내대표는 “웹툰 뿐만 아니라 노동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한국 사회가 새롭게 정립해야하는 시스템이 늘어났다”며 “개인의 창작 역량과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 경쟁력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선례를 잘 만들면 다른 산업분야에도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저희도 결국 상생하는 것이 전체 파이를 키우고 역량을 극대화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께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다”며 “현장에서 함께 노력해 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모두의 그릇을 함께 키우는 과정을 잘 밟아가자”고 강조했다.

오늘 상생간담회에는 박홍근 민생우선실천단장, 한준호 빅테크 갑질대책TF 팀장, 김병욱·유정주 의원, 이수진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이진수 대표이사, 황현수 스토리부문 대표, 박정서 웹툰 총괄과 네이버웹툰의 김현우 한국웹툰리더가 참석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김재현 콘텐츠국장도 참석했다.

**2022. 8. 12.**  
**민생우선실천단 빅테크 갑질 대책TF**